

시인은 왜 술을 마실까?

글 진우석 르포작가 mtswamp@naver.com

술은 오랫동안 예술가들에게 삶의 진부한 조건들에 대항하는 힘과 영감의 원천이었다. 술 마다하는 예술가 없겠지만 특히 시인들의 술 사랑은 각별하다.

“술만 마셨다 하면 시가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고백한 것은 박정만(1946~1992) 시인이다. 모든 시인이 그와 같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시적 영감을 깨워주고, 막힌 기운을 시원하게 뚫어주지는 않을까. 단언하거니와 나는 술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를 안다. 그것은 누룩으로부터 발효된 술이 인간을 자연화, 식물화하고 하나의 풀잎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때의 그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고 포근한 우리의 평화, 또는 자유, 또는 사랑. 이 글은 술을 향한 박정만의 시적인 사랑 고백이다. 그는 1987년 한 해 동안 1천 병 이상의 소주를 마셨다. 최소한 하루에 3병꼴인 셈이다. 빈 소주병을 치우지 않고 조그마한 마당에 늘어놓으니 그 모습이 장관이었다고 한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그해 여름 20여 일 동안 소주만 1백 병 이상을 마시며 무려 3백여 편의 시를 썼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박정만에게 있어서 술이란 시를 나오게 하는 어떤 묘약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술이 약한 시인은 어떨까. 기형도(1960~1989) 시인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체질로 주량이 맥주 한 병쯤이었다. 하지만 기형도 역시 술만 마셨다 하면 변화가 빨리 왔다. 평소에는 늘 어둡고 쓸쓸하고 어딘가 공허한 표정이지만 술만 들어가면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 많아졌다. 노래를 부르라고 권하면 서슴없이 뛰어난 솜씨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남

보다 10분의 1의 술을 마시고도 10배의 효과를 낸 셈이었다. 그렇지만 기형도의 시세계는 어둡기 짝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평론가 김현이 “나는 누가 기형도를 따라 그 길을 갈까봐 겁난다”고 했을까. 만약 기형도가 애주가였으면 어땠을까. 술에 취하면 흥겨워하고 사고적이었던 그의 모습에 비춰본다면 그의 시 역시 좀 밝아지지 않았을까.

천상병, 천진무구한 시세계의 비밀은 술
천상병(1930~1993) 시인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손가락 세 개를 펼쳐보였다. 하루의 술값인 300원을 구걸하는 것이다.

골목에서 골목으로 / 거기 조그만 주막집 / 할머니 한 잔 더 주세요. / 저녁 어스름은 가난한 시인의 보람인 것을... / 흐리멍텅한 눈에 이 세상은 다만 / 순하다순하기 마련인가 / 할머니 한 잔 더 주세요. / 몽롱하다는 것은 장엄(莊嚴)하다. /

천상병, 「주막(酒幕)에서」중에서

운 좋게 돈이 생기면 언제나 주막으로 갔다. '저녁 어스름' 주막에서 한 잔하는 것은 천상병의 '보람' 이자 낙이었다. 한 잔 한 잔에 취해 '흐리멍텅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순하다순하'기만 하다. 그리고 '몽롱하다는 것은 장엄하다'는 빼어난 구절을 낳는다. 천상병에게 술이 삶과 세계를 따뜻하고 숭고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묘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어쩌면 술이 없었다면 천상병의 천진무구한 시세계도 그다지 풍요롭

지 못했을 것이다. 천상병에게 현실은 가난으로 찢든 고통의 세계였지만 술을 통한 도취와 행복 덕분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귀천')와 같은 긍정과 화해가 가능했을 것이다. 문단에서 누구보다 술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사람은 고은 시인이다. 고은은 얼마 전 어느 시 잡지에 이런 글을 쓴 일이 있다.

“이제 시인들 가운데 술꾼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막말로 최근의 시가 가슴에서 터져 나오지 않고 머릿에서 짜여져 나오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술을 마셔야 좋은 시를 쓴다?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다. 아마 고은 시인은 요즘 젊은 시인들의 시에 생기와 활력, 그리고 낭만적 요소가 부족한 현상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뒤이어 어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다.

“마시면 행복하고 깨어날 때의 황폐함, 그 황폐함에 대한 자기 회한과 환멸, 연민, 허무와 함께 하기 위해 마시고 또 마셨다. 그렇게 내 시는 씩어졌다. 나는 시인에게 깨어 있기보다 취해 있기를 권하고 싶다. 취기와 광기를 저버리는 것은 시인에게는 죽음이다”

조지훈, 술꾼은 술꾼을 알아본다

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조지훈(1920~1968)이다. 일찍이 주성(酒聖)으로 통하던 조지훈은 술꾼의 단수(段數)를 바둑처럼 18단계로 나누어 내로라하는 술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급을 매겼던 것은 문단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다. 시인이자 학자였던 조지훈은 술꾼들의 주장에서 그 사람의 인품과 주력(酒歷)을 간파했다. 그래서 '주정도 교양'이라 강조하며 주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주량으로 따지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후배 시인 김관식의 뺨을 올려붙이며 겨우 '3단'

을 부여했던 것은 김 시인의 고약한 술버릇이 주도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 김관식(金冠植)' 명함에 그렇게 새기고 다니며 한국전쟁 후 황폐한 시대를 술과 기행으로 살았던 김관식은 결국 술병을 얻어 36세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조지훈은 낙주종생(樂酒終生)한 사람, 곧 술을 즐기다가 삶을 마감한 사람에게 최고 단수인 9단을 부여했으니, 김관식은 3단이 아닌 9단이 된 셈이다. 또한 조지훈은 「술은 인정이어라」라는 수필에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청년 시절, 친구들과 술집 순례를 하며 밤늦도록 마시다 대취하였고 어쩌다 친구들과 헤어졌다. 시인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관철동 친구 집을 찾아 들어가 잠을 잤다. 새벽에 눈을 떠보니 옆에 자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반백이 넘은 노인이었다. 놀란 시인은 슬그머니 일어나 뺨소리를 치려는데, 느닷없이 옆의 노인이 시인의 발목을 붙잡았다.

“여보 노형, 해장이나 하고 가야 피차 인사가 되지 않소?” 노인은 얼른 일어나 주전자와 냄비를 들고 골목 밖으로 사라졌다. 조금 뒤에 딱딱하게 데운 술과 뜨거운 해장국을 들고 나타났고, 시인과 노인의 술판이 벌어졌다. 시인은 다시 술에 취한 뒤에야 어젯밤 문을 열어준 사람이 노인인 것을 알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노인이 시인을 재워준 이유다. 길가에 쓰러져 자다가 어떻게 될까 하는 아버이 같은 염려도 있었지만 해장술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다. 노인 역시 애주가였던 것이다. 조지훈 시인은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하며 다음과 같이 글 마지막을 맺고 있다.

“나는 그분의 성함도 모른다. 그 노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술을 아는 이만이 서로 알아주는 그 것이 바로 따뜻한 정임을 이 일로써 깨달았다”